

www.someta.co.kr

수능 문학 필수 커리

쌤타 문학 수정방

수학처럼 정답이 보이는 수능 문학 해결 방법

저자 유재완

가장 원리적이면서 가장 실전적인, 그리고 가장 수능적인!
수능 문학에 눈을 뜨게 해줍니다.

쌤타
D

썸타 문학 수정방

CONTENTS

- 수능 문학 공부법
- 이 책의 구성과 공부 방법

시문학

▶ 시문학 포커스

1. 시의 본질
2. 시의 음악성
3. 시의 이미지
4. 시의 행과 연
5. 시 읽기 방법

▶ 시문학 수정방

1. '화자와 시적 상황' 관계 확인
2. 시어 의미 파악 방법
3. 서술어와 통사구조에 유의하기
4. 시상 전개 방식 확인 방법
5. 시의 어조 확인 방법
6. 고전시가 활용법

소설문학

▶ 소설문학 포커스

1. 소설의 본질과 특징
2. 소설 문제 유형
3. 소설 읽기 방법

▶ 소설문학 수정방

1. 서술자 이론 정확히 이해하기
2. 이야기 표면에 드러난 사실 확인
3. 이야기 속에 숨은 맥락 확인하기
4. 〈보기〉 문제 해결 방법
5. 고전소설 활용법

희곡·시나리오

▶ 희곡 시나리오 포커스

1. 공연의 본질과 극문학의 특징
2. 희곡 읽기 방법
3. 시나리오 읽기 방법

▶ 극문학 수정방

1. 대사과 지시문으로 희곡 이해하기
2. 시나리오 해결 방법

수필문학

▶ 수필문학 포커스

1. 수필의 본질과 출제 원리

▶ 수필문학 수정방

1. 대상의 속성과 의미 확인하기



수능 문학 공부법

◆ 갈래별 이론과 개념을 정리하라.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갈래별 이론과 개념을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문제 해결에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죠. 이 책은 문학 갈래의 이론과 개념을 '수준 있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찬찬히 정독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낯선 작품을 스스로 읽어 보라.

학생들이 시나 소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읽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작품을 외우는 방식으로, 남이 해설해 준 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문학 작품의 해설을 참고하지 않고 스스로 먼저 읽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 기출문제 공부할 때 작품과 선지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보라.

문학 기출문제 1개 지문을 공부할 때, 작품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어 보는 겁니다. '작품 읽고 → 선지 읽고 → 작품 읽고 → 선지 읽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깊게 이해하는 것이 문학 실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15분~20분 정도 문학 1개 지문을 반복해서 읽어 보는 방법은 비문학 공부법과 다른 점입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 선지에 나온 문학 개념어를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하라.

선지 구성 방식은, "A하여 B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A는 문학 작품에 나온 특징을 문학 개념어로 바꾸어 제시하고 있고, B는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학적 효과를 역시 문학 개념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A도 타당해야 하고 B도 타당해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에 나온 개념어가 특정 작품에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오답의 선지도 다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이 책의 구성과 공부 방법

◆ 포커스

- ▶ 갈래 별 문학의 본질과 개념을 쉽게, 수준 있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 ▶ 이론과 개념을 기술 문제와 작품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 ▶ 일회 정독하면 내용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체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시에 나온 문제와 작품을 기술 문제에서 찾아서,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수정방

- ▶ 수정방은, 작품 읽기 방법과 문제 해결 방법이 결합된, 실전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 ▶ 수정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 이론과 개념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시와 「기술문제에서 확인하기」를 통해, 수정방이 적용되는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수정방의 연습 문제는 기술 문제에서 엄선된 고난도 작품과 문제들입니다. 오답률도 높았고, 학생들 질문도 많았습니다. 연습 문제를 풀 때는 앞쪽에서 말한 '수능 문학 공부법'에 따라 하십시오. 즉, '작품 읽고 → 선지 읽고 → 작품 읽고 → 선지 읽고'를 반복하여 작품 내용과 선지의 개념어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정방에서 제시한 원리와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작품 분석과 문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신기 유재완

글쓴이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국어논술학원을 10년 이상 운영하면서, 수능 국어, 독서와 논술, 소논문, 구술면접 등을 수업하고 있다. 그리고 수험생 사이트에서는 '언어신기'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에는 「언어신기의 EBS 최종공략집」이라는 소책자를 이투스에서 출간하여, '반전 모의고사'를 출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12년에는 오르비 인강 개설 때 시범 강의로 「언어신기의 수능만점 문학 공부법」(5강)을 촬영하여 수험생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강의는 지금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썸타 문학 수정방』은 여러 차례 원고를 가다듬고, 학생들과 수업을 통해 교재 내용을 검증하여, 최적의 수능 문학 개념서와 훈련서로 나오게 되었다. 문학 공부 방법과 작품 읽기 방법이 실전 문제의 해결 방법이기도 한 『썸타 문학 수정방』은, 가장 원리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실전적인 교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www.someta.co.kr에 오시면 교재 내용과 수능 국어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학습자료와 학습컬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교재를 공부한 후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www.someta.co.kr의 「교재공부 이야기」 부분에 올려주시면, 매달 몇 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필요한 분들

◆ 문학이 장벽인 학생

작품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 향상이 시급한 학생입니다. 먼저 문학 갈래별 본질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작품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합니다. 『썸타 문학 수정방』은 이 같은 능력을 단계적으로 끌어 올려줍니다.

◆ 문학을 감으로 해결하는 학생

독서량이 많아 작품 이해가 괜찮고 문제 해결도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런데 작품이 애매하거나 고난도 문제가 출제될 경우, ‘감에 의한 문제 해결’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썸타 문학 수정방』은 문학 갈래에 대한 정교한 개념과 이론에 따라 작품 분석과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작품 분석력과 문제 해결력을 배가시켜 줍니다.

◆ 문학이 불안한 최상위권 학생

『썸타 문학 수정방』은 애매했거나 불분명했던 고난도 문학 기출 문제를 문학 개념과 이론에 따라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풀이합니다.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히 해결함으로써 최상위권 학생의 불안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한 사람의 후기

- 용한 -

<개념, 작품분석, 문제해설까지 모두 완벽한 한 권의 문학 필수서!!!!>

저는 모의고사 봤다하면 항상 문학에서 틀리곤 했습니다. 특히 현대시와 소설쪽에서요. 이 두 파트 때문에 항상 원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 공부해보긴 했는데 딱히 도움 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오히려 시간만 흘러가는 거 같아 초조했어요. 그렇게 초조해하다가 최근에 '썸타 문학 수정방'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다른 책들이랑 별 다름없겠지? 하고 별로 기대안했었는데, 몇 일 동안 이 책으로 공부하다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개념은 개념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해설이 빈약한 다른 책들과는 달리 썸타 문학 수정방은 개념, 문제, 해설 이 모든 게 딱딱 담겨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았습니다.

특히 기출문제로 구성되어있고 너무나도 상세하고 자세한 분석, 해설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이라면 꼭 한번 봐야할 책같고, 문학이 저처럼 많이 약한 친구들은 진짜 정말로 꼭!!!! 봐야할 거 같아요. 정말 읽으면 다 이해될 정도로 차근차근 해설이 되어있으니까요 ㅎㅎ

썸타 문학 수정방으로 공부하면서 문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고 원하던 등급도 맞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시문학 수정방

1. '화자와 시적 상황' 관계 확인
2. 시어 의미 파악 방법
3. 서술어와 통사구조에 유의하기
4. 시상 전개 방식 확인 방법
5. 시의 어조 확인 방법
6. 고전시가 활용법

쌤터
D

1. ‘화자와 시적 상황’ 관계 확인

수능 TIP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파악하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를 이해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정서를 파악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에 따라 정서와 태도가 시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정서와 태도가 바로 파악되지 않는 시가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핵심 포인트는, 화자가 드러났나 숨어 있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 화자가 드러났으면 시적 상황은 화자 자신의 것이다.

- ↳ 시에서 ‘나’, ‘우리’라고 표현되었으면 화자가 드러난 것이다.
- ↳ ‘나’,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도 누군가를 부르고 있으면(=호격을 사용하고 있으면) 화자가 드러난 것이다.
- ↳ 시적 상황이 화자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정서와 태도를 직접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 ↳ 화자가 드러났어도 시적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경우 화자의 정서는 간접적으로 환기된다.

▣ 화자가 숨어 있으면 화자는 시적 상황을 관찰한다.

- ↳ 문장의 주어가 모두 3인칭이거나 사물 대상이면 화자는 숨어서 시적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 ↳ 화자는 시적 대상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서나 태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는다.
- ↳ 이런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촉발되거나 환기될 가능성이 높다.
- ↳ 문장의 주어를 숨기거나 행위 주체를 가림으로써 ‘화자-시적 상황’ 관계가 모호한 시가 있다.

예시

시적 상황과 화자 - 신경림, 「갈대」

[2004학년도 9월]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 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 화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갈대를 의인화하여 노래함으로써 갈대가 화자 자신임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등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그 못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어디서 밤을 지냈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실업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건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의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의 잠

- 나희덕, 「못 위의 잠」 -

☑ 분석 포인트

.....
 화자가 누구일까요? 또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시어도 찾아보세요.

(나)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平安道)의 어늬 산(山) 깊은 금덤관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섬벌같이 나아간 지아지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山) 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山)절의 마당귀에 여인(女)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女僧)」 -

문제.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사람이, (가)는 자연물이 시상을 유발한다.
- ④ (나)는 (가)에 비해 내면을 성찰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 ⑤ (가)와 (나)는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 분석 포인트

선지의 개념어와 작품을 연결시키면서 (가) 시와 (나) 시를 여러 번 읽어 보세요

(가) 「못 위의 잠」 - 나희덕

(1) 화자는 누구인가 ☞ 작품의 급소

- ▷ 화자는 숨어서 시적 상황을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주어가 모두 3인칭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시적 상황을 관찰할 경우에는 화자와 시적 상황 사이에는 거리감이 있게 마련인데, 이 시는 친밀감을 주고 있어요. 서술어미가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시적 상황이 화자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 ▷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의 시행에서 화자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자기 남편(=아비)의 마음을 이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인이 여자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화자가 숨어 있는 듯하지만 화자는 자신을 제3자로 표현한 거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 ▷ 그런데 화자는 ‘아이 셋’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시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내’, ‘아비’, ‘아버지’입니다. 이들 시어는 모두 동일 인물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밤’, ‘기억나게 하는’ 시어입니다.

(2)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 ☞ 작품의 급소

- ▷ ‘사내’와 ‘아비’라는 시어에만 주목하고 ‘아버지’라는 시어를 놓치면, 화자를 ‘피곤에 지친 한 여자’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시어를 주목하면, 화자는 ‘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인이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오늘 밤’, ‘기억나게 하는’ 시어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 어렸을 적 ‘종암동 버스 정류장’의 모습을 화자가 ‘오늘 밤’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종암동 버스 정류장’ 부분은 과거 회상 장면입니다. 화자는 무엇을 보고 이 장면을 떠올렸을까요? 바로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보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것이죠.
- ▷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는 자식과 부인에 대한 미안함,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가족 구성원들과의 거림감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자는 ‘오늘 밤은 알 것도 같다’라고 말하면서 실업자였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죠.

(나) 「여승」 - 백석

(1) 화자와 시적 상황과의 관계

- ▷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어요. ‘나’라는 일인칭 화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자는 시적 상황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삶을 지켜보고, 그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 ▷ 이 시는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1연이 현재이고, 2연 ~ 4연까지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는 2연 → 3연 → 4연 → 1연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2연 ~ 4연까지의 결과로 1연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연에서 정서를 드러내는 부분, 즉 ‘가지취 내음새’, ‘벚날같이 늙었다’,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는 2연 ~ 4연까지 여인의 삶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2) 정서 표출 방식 ◀ ◻ 작품의 급소

- ▷ 이 시의 정서는 ‘서러움’, ‘슬픔’입니다. 그런데 이 정서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화자 자신이 원래부터 슬픔을 갖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삶이 화자에게 슬픔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화자는 시적 상황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상황이 화자에게 정서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 ▷ 화자가 1인칭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화자는 자신의 정서를 직접 말해버릴 수 있습니다. ‘슬프다, 기쁘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 시에서는 화자가 여인의 삶을 들려주면서 정서를 직접 표출하고 있습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는 시행은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 ▷ ‘가지취의 내음새’는 여승이 절 생활에 익숙해지고, 여승의 슬픔이 가라앉았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승의 얼굴은 쓸쓸합니다. 화자는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진을 보면, 빛이 바래고 퇴색해 있죠? 화자는 여승의 쓸쓸함에서, 여인의 과거 삶이 시간 속에서 퇴색되고 바래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불경처럼’ 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은 모든 인연과 업보에서 인간의 슬픔과 괴로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화자는 서러움의 정서를,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인연과 업보와 관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문제해설

정답 ④

- (나) 시는 화자가 여인의 삶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 성찰과는 관계가 없어요.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는 여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슬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가) 시는 화자의 내면 성찰과 관련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뚜렷한 시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에서 ‘안다’라는 말이 화자의 깨달음과 성찰이 있었음을 알려주죠.

①

- 간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은 시적 대상이나 사물을 통하여 정서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의 모습이 화자에게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것은 ‘슬프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시에서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감정을 직접 표출하고 있습니다.

②

- (가)는 (나)에 비해 친근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친밀감을 주고 있는 것이죠.
- 친밀하나 아니냐는 서술 어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여 친밀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야, 임마.”식으로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전혀 친밀감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③

- (가) 시와 (나) 시에는 시적 대상을 관찰하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화자가 바라보는 외부 상황이 화자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 (가) 시는 못 위의 제비가 화자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나) 시는 여인의 삶이 정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제비는 자연물입니다. 참고로 자연물과 대조되는 개념은 인공물입니다.

⑤

- (가) 시에서 비유적으로 인물을 표현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빗대고 있습니다.
- (나) 시에서는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물의 모습을 ‘넷날’이라는 시간 개념에 빗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떼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끊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쟈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 마당에 들어서니 다리를 저는 오리 한 마리 유난히 허둥대며 두엄자리로 도망간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슬레이트 흙담집, 겨울 헤어림의 집 안엔 아무도 없고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다. 여덟 자 방구석엔 고구마 뒤투가 여전하며 벽에 메주가 메달려 서로 박치기한다. 허리 굽은 어머니는 냇가 빨래터에서 오셔서 콩깍지로 군불을 피우고 동생은 면에 있는 중학교에서 돌아와 반가워한다. 닭똥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 일당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를 버는 아버지는 한참 어두워서야 귀가해 장남의 절을 받고, 가을에 이웃의 텃밭에 나갔다 팔매질당한 다리병신 오리를 잡는다.

- 최두석, 「낡은 집」 -

* 예제로 : 여기저기로

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익숙했던 공간에 들어서며 낯선 느낌을 받는다.
- ② (가)의 화자는 아직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공간을, (나)의 화자는 여전히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을 벗어나고자 한다.
- ③ (가)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각박한 인심이 여전히 좌절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세상이 변해도 인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농민의 처지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의 모습이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나)의 화자는 산업화를 통해 농촌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희망한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 ① (가)에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을 보니, 화자는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겠군.
- ② (가)에서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묘사한 것으로 보니, 화자의 의식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고향의 가족들이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군.
- ④ (나)에서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아버지가 오리를 잡아 주는 것을 본 화자는 고향에 와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군.
- ⑤ (가)에서는 고향을 앞에 두고도 고향 근처 주막에 머물고 있고 (나)에서는 고향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겠군.

(가) 「고향 앞에서」 - 오장환

(1) 화자와 시적 상황 관계 파악하기   작품의 급소

- ▷ ‘나’, ‘우리’라는 말이 없어서 화자가 숨어서 시적 상황을 관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미 맥락도 불분명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장꾼들이여!’라는 부분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2인칭 청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청자를 부르고 있는 1인칭 화자가 존재하며,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 그렇다면 이 시에 나타난 상황은 화자 자신과 관련되고 있습니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함을 느끼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화자이고, 주막에서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도 화자입니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누룩이 뜨는 내음새’를 맡는 것도 화자이죠. 화자는 시 제목처럼 고향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 ▷ 화자의 정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죠. ‘내음새’는 고향을 느끼게 하는 사물인데, ‘강바람’과 ‘설레는 바람’을 타고 화자에게 전달되고 있네요. 그런데 ‘바람’이라는 시어 앞에 ‘설레는’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시어를 통해 화자의 감정 상태가 ‘설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통해 시의 의미 맥락 이해하기

- ▷ 3연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의 의미 맥락이 모호합니다. 그러나 문장과 문장의 연결 관계를 따져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설의법이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함께’라는 시어가 이런 의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	
양귀비 끊어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주막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이 첫째 문장과 의미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공연히’라는 시어가 이것을 암시하죠. 늙은이 자신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화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 사이에는, 즉 화살표(↓) 부분에는 사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화자가 ‘지난날의 꿈’을 주막집 늙은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 「낡은 집」 - 최두석

(1) 묘사로 되어 있는 시를 이해하는 방법

- ▷ 이 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화자는 고향의 「낡은 집」에 대해 감정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라고까지 하면서 정서 표출을 자제하고 있죠.
- ▷ 이처럼 묘사가 중심인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는 사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암시됩니다. 그래서 선지에서도, ‘정경묘사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바닥은 선뜩한 냉돌’이라는 부분은 이와 관련됩니다. 화자가 고향에 와서 느낀 썰렁함을 ‘선뜩한 냉돌’이라는 사물로 암시합니다.

(2)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를 이해하는 방법 작품의 급소

- ▷ (나) 시에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구성하는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들이 객관적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이것들의 의미나 이 속에 담긴 정서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 ▷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 속에서 화자의 정서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에서는 사건 자체가 정서를 암시합니다. 풍경을 묘사한 시에서는 사물 대상이 정서를 암시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어 있는 시에서는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 자체가 정서를 암시합니다.
- ▷ (나) 시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인물들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머니,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제시되지만, 이들의 행동은 전부 이 집안의 장남인 화자 자신과 관련되고 있죠.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는 것, 동생이 반가워하는 것,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을 찾아온 화자를 위한 행동들입니다. 화자 자신이 이에 대해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가족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설문학 수정방 3 「이야기 속에 숨은 맥락 확인하기」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게 됩니다.)

명쾌한 문제해설

1번 정답 ①

- (가) 시에서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부분은 화자의 추측과 예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행인에게서 친근감(=따뜻함)을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나) 시에서는 '귀향이라는 말을 매우 어설피하며'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낯설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뜩한 냉돌'이라는 부분도 화자의 낯설음을 암시합니다.
- ①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 시의 상황이 화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④번이 그럴 듯하게 보이는 '매력적인 오답'이기 때문입니다.

②

- (가) 시에서 '조상'은 화자 자신을 있게 한 삶의 뿌리입니다.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화자에게 '고향'은 여전히 삶의 근원이 되는 공간이죠. 조상님이 고향에 없다면, 고향은 더 이상 고향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조상은 화자와 고향을 이어주는 끈인 것이지,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나) 시에서 화자는 도시에서 고향을 찾아온 상황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부모형제가 사는 곳이죠. 고향을 찾아오자마자 고향을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③

- (가)에서 '혹여나 보셨나이까?'라는 부분에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장꾼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각박한 세상 인심에 화자가 좌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셨나이까?'에서 목적이 빠져 있습니다. 즉 화자는 장꾼들에게 이것을 보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음 연에 나오는 '누룩이 뜨이는 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고향 소식을 물으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 (나) 시의 화자가 세상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인심을 소망하고 있다고 추측할 단서가 없습니다.

④

- (가) 시의 화자는 떠돌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화자의 정서는 '설레임'이지 '무상함'(=덧없음)이 아닙니다. 화자는 '고향 앞에서' 자기 삶의 근원적 공간과 다시 만나는 것을 앞두고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 (나) 시의 화자는 공장 노동자로 전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화자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무상감'을 추론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⑤

- '자연과 조화'나 '산업화를 통한 농촌 변화'는 (가) 시나 (나) 시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정답 ①

- (가) 시에서 ‘공연히 눈물지운다’의 ‘공연히’라는 시어는 주인집 늙은이가 화자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자가 들려주는 ‘지난날의 꿈’ 이야기에 주인집 늙은이는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주인집 늙은이도 실향민일 가능성이 큼니다. 여하튼 화자가 주인집 늙은이에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화자와 주인집 늙은이는 서로의 처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 따뜻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의 부분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화자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②

- (가)의 화자는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고향을 가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찾아갔다면 고향의 변한 모습이 화자의 의식에 남아 있을 겁니다.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술을 빚고 있는 모습으로 고향’을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고향임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자의 의식에는 고향은 평화롭고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③

- ‘고향 가족의 궁핍한 삶’과 고향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궁핍하게 살아도 고향은 아름다운 곳일 수 있죠. 다른 작품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바닥은 선풍한 냉들’이라는 부분에서, 화자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낡은 집’ (=궁핍한 삶)을 낫설고 불편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 <보기>에서는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라는 말로, 고향에 대한 낫설음이 ‘미완의 귀향’을 의미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시의 화자가 고향에 대해 낫설음을 갖는 것도 바로 ‘낡은 집’ (=궁핍한 삶) 때문입니다.

④

- 이야기 속의 인물 행동을 살펴볼 때, 그것이 누구와 관련되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은 모두 화자와 관련되고 있습니다. 화자가 감정을 내색하지 않아도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⑤

- (가)의 화자는 고향에 못 들어가고 서성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향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나)의 화자는 고향에 들어갔지만, 고향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풍한 냉들’, ‘서울 광주 간 차비 정도 버는 아버지’ 부분에서 화자의 불편한 마음이 보입니다. 역시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